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b>보도 참고 자료</b>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담당부서	금융상품분석실	박종길 실장(3145-8320), 서명수 팀장(3145-8322)	

## 제 목 :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b>■ 소비자경보 2020-6호</b>	
등급	주의   경고 <b>위험</b>
대상	ETN 상품 투자자 등

###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이하 ‘레버리지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간 괴리율이 이례적으로 폭등\*하였음에도,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대거 몰려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 ETN의 유동성공급 기능이 원활치 못해 최근 괴리율이 최대 95.4%까지 폭등

○ 이번 경보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12.6월)한 후 최고 등급(‘위험’)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첫 사례임

- 거래소 및 발행사가 큰 괴리율에 따른 손실위험을 알리고 있음에도 거래량과 괴리율이 폭등하는 등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 괴리율이 폭등한 상황에서 투자할 때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긴급히 최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것임

※ (소비자경보 개요)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 1 발령 배경

-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향후 유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유가연계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WPI 지수 추이 : '19.12월 : 61.1 → '20.1월 : 51.6 → '20.2월 : 44.8 → '20.3월 : 20.5 → '20.4.8 : 25.1

- 특히 레버리지 ETN 투자가 증가하면서 괴리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가격이 지표가치\*\* 대비 큰 폭으로 과대평가되는 현상 발생

\* 괴리율(%) :  $(\text{시장가격} - \text{지표가치}) / \text{지표가치} \times 100$ ,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투자위험 지표로 괴리율이 양수인 경우 시장가격이 과대평가 되었음을 나타냄

\*\*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한 개념으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 투자 상환시 상환기준가로 사용되며 괴리율 판단기준으로도 사용

- 이는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 기능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괴리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ETN 투자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최고수준인 '위험' 등급의 소비자정보를 긴급히 발령

## 2 최근 괴리율 확대 원인 및 현황

### 가 괴리율 확대 원인

◆ 레버리지 ETN 괴리율 확대는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에 대응하여 유동성공급자(LP)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 최근 사우디-러시아간 원유 분쟁으로 원유지수가 급락한 이후, 원유지수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N 매수가 급증하였으나, 유동성 공급 및 괴리율을 조정하는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물량이 모두 소진
- 유동성 공급 기능이 사라진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수물량이 급증하면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를 크게 상회하며 괴리율 폭등

※ **유동성 공급 및 괴리율간 관계**

- LP들은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있으나
  - 최근 개인투자자의 매수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LP물량 소진 및 LP호가가 사라지면서 레버리지 ETN의 시장가격 상승 및 괴리율 폭등

일반적인 상황(LP 물량 있을 경우)				현재 상황(LP 물량 없는 경우)			
매수호가		매도호가		매수호가		매도호가	
투자자	호가	투자자	호가	투자자	호가	투자자	호가
		1,050	개인F			1,050	개인F
		1,030	개인C	개인D	1,030	1,030	개인C
		1,020	LP				
개인A	980	980	LP	개인A	980		
개인B	970			개인B	970		

- 레버리지 ETN 상품\*의 월간 개인 순매수 금액은 '20.1월 278억원에서 '20.3월 3,800억원으로 3,522억원(1,266.9%) 증가

\* 삼성, 신한, NH, 미래에셋 등 4개사가 판매한 레버리지 ETN 기준

**레버리지 ETN 상품 개인 순매수 현황**

(단위: 억원)

'19.12월	'20.1월(A)	'20.2월	'20.3월(B)	'20.4월	증감(B-A)
△ 125	278	702	3,800	458	3,522

\* 자료 : 한국거래소

**나 괴리율 현황**

- '20.4.8. 현재 주요 레버리지 ETN 상품의 괴리율은 증가 기준 35.6%~95.4%로 매우 높은 수준
- ETN은 지표가치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고, 유동성공급자(LP)가 6% 범위내 관리토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주요 레버리지 ETN 괴리율(4.8일 기준)**

(단위: 원, %)

발행사	장중최고			장중료시		
	지표가치	시장가격	괴리율	지표가치	시장가격	괴리율
삼성	1,828	3,505	91.7	1,632	3,190	95.4
신한	1,443	2,400	66.3	1,285	2,260	75.9
NH	1,361	2,225	63.5	1,240	2,150	73.4
미래	3,279	4,535	38.3	3,050	4,135	35.6

\* 자료 : 코스콤

### 3 투자자 유의사항

◆ 괴리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N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 괴리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N에 투자하면 기초 자산인 원유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할 수 없고
  - 오히려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큰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
    - \* LP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지표가치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음
  - 즉, 투자자는 괴리율에 해당하는 가격차이 만큼 잠재적 손실 부담
- 또한 ETN 상환\* 시 시장가격이 아닌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상환되므로 지표가치보다 높게 매수한 투자자는 상환손실 발생 가능
  - \* 괴리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소는 LP 교체를 발행사에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조기상환)할 수 있음

### 4 향후계획

- 관계기관, ETN 발행사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ETN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 금융상품 관련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금융소비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